

세계 선진 해양도시 메논 보고서 분석을 통한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2024. 5., 금융연구1실, 윤보람)

1 메논 보고서 개요

- 보고서명: 세계 선진 해양도시 The Leading Maritime Cities of the World(LMC) 2024
- 발표기관: Menon Economics(노르웨이 경제·산업 연구 컨설팅 기업), DNV(노르웨이·독일 선급기관)
- 발간시기: 격년제(2012년부터 발행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2021년 보고서는 2022년 발표됨)
- 선정방법
 - 정량지표에 의거하여 15,000곳 이상의 도시 중 50개의 글로벌 해양도시 선정
 - 정량지표 평가 및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50개 ‘글로벌 해양도시’의 순위를 발표
 - 정량지표 데이터 상세 검증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글로벌 해양도시 Top-5 선정
 - 보고서의 조사 방식과 지표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금번 순위와 종전 순위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함(본 보고에는 참고 목적으로 순위 추이를 기술)
- 평가부문: ①해운중심지(Shipping Centers) ②해양금융 및 법률(Maritime Finance and Law) ③해양기술(Maritime Technology) ④항만 및 물류서비스(Ports and Logistics) ⑤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 세계 주요 해양 도시들과의 부산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동북아 해양 중심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2 부산 평가 결과

- (종합평가 부문) 조사대상 50개 주요 해양도시 중, 종합 10위를 기록
- 부산의 역대 종합순위는 메논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10~13위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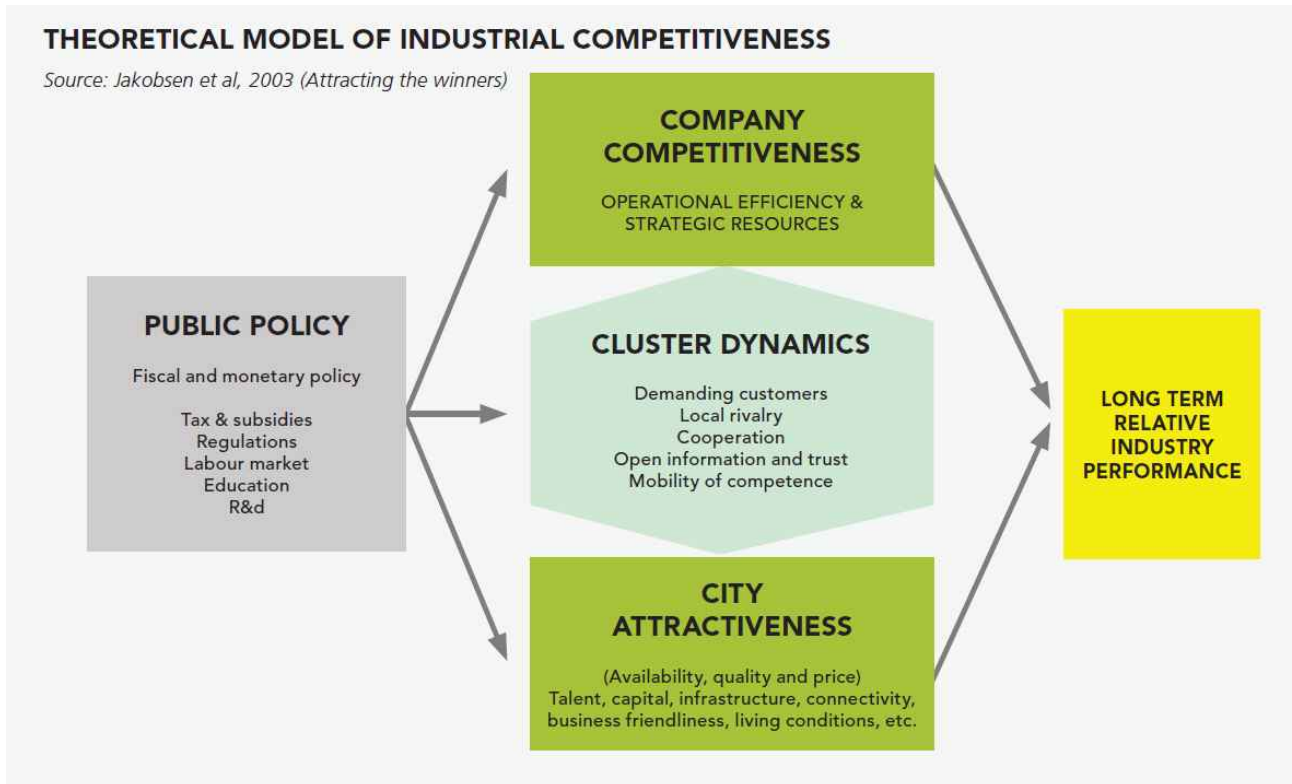
년도	2012	2015	2017	2019	2022	2024
순위	(데이터 없음)	11위	13위	10위	11위	10위
변동 (전년도 대비)	-	-	↓2	↑3	↓1	↑1

<표 1> 메논 보고서 기준 부산의 역대 종합순위

- 2022년 기록(11위)과 대비하여 순위 1단계 상승
 -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도시 중에서는 **종합 4위**를 기록
 - (1위) 싱가포르 (4위) 상하이 (7위) 도쿄 (10위) 부산 (12위) 홍콩

□ (상위평가 부문) 해양기술 1위 ※ '인천/서울'은 해당 부문 12위 기록

□ (하위평가 부문) 해운, 해양금융 및 법률, 항만 및 물류, 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 부문에서는 모두 15위권 밖으로,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음



<그림 1> 산업경쟁력 이론 모델(Jakobsen et al, 2003(Attracting the winners))

□ 한국(부산/서울)의 부문/지표별 순위

	Busan (2024)	Busan (2022)	변동	Incheon/Seoul (2024)	Seoul (2022)	변동	
Shipping	Fleet size - Management	11	11	-	17	16	▽1
	Fleet size- Owner	32	31	▽1	7	7	-
	Fleet value - owner	32	31	▽1	6	8	▲2
	Number of shipping HQ	18	16	▽2	13	12	▽1
	Turnover shipping companies	18	20	▲2	7	7	-
	Env.Friendly fleet size - owner	36	30	▽6	6	6	-
	Q. Shipping	14	21	▲7	31	26	▽5
	Q. Operations	17	19	▲2	34	20	▽14
	Q. Cargo owners and charterers	29	-	지표신설	24	-	지표신설

Maritime Finance and Law	Legal experts	29	.	▲29	16	.	▲16
	Maritime lawyers	.	.	-	34	36	▲2
	Insurance premiums	.	.	-	9	8	▽1
	Mandated loans	-	.	지표삭제	-	.	지표삭제
	Shipping banks portfolio	.	.	-	5	7	▲2
	Number of listed maritime owner groups	8	7	▽1	.	.	-
	Market cap maritime companies	5	4	▽1	.	.	-
	IPO/Bonds/Follow ons	8	5	▽3	.	.	-
	Green IPO/Bonds/Follow ons	.	-	지표신설	.	.	지표신설
	Q. Finance	23	25	▲2	17	27	▲10
	Q. Sustainable finance	23	-	지표신설	23	-	지표신설
Port and Logistics	TEU in port	7	6	▽1	37	32	▽5
	Size of Port Operators	-	6	지표삭제	-	12	지표삭제
	Line Shipping Connectivity index	44	.	▲44	.	.	-
	LNG available at ports	8	4	▽4	.	.	-
	Q. Ports	9	9	-	23	30	▲7
	Q. Digitalized ports	12	-	지표신설	27	-	지표신설
	Q. Multifuel ports	14	-	지표신설	28	-	지표신설
Maritime Technology	Shipyards deliveries	1	1	-	30	26	▽4
	Shipyards deliveries - eco friendly ships	1	1	-	23	19	▽4
	Operational turnover of companies in maritime technology industry	2	2	-	4	4	-
	Classified fleet	7	7	-	24	24	-
	Market value of ships	1	1	-	.	.	-
	Number of maritime patents	2	5	▲3	3	1	▽2
	Number of Maritime education institutions in each city	29	31	▲2	29	31	▲2
	Q. Technology	4	4	-	9	10	▲1
	Q. Sustainable	21	12	▽9	13	17	▲4
	Q. Digital	13	13	-	13	17	▲4
Q. R&D	13	11	▽2	15	17	▲2	
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Ease of doing business	4	4	-	4	4	-
	Transparency/corruption	23	27	▲4	23	27	▲4
	Entrepreneurship	8	17	▲9	8	17	▲9
	STRI Index	.	19	▽31	.	19	▽31
	Global Innovation Index	10	-	지표신설	10	-	지표신설
	Quality of Living	26	-	지표신설	21	-	지표신설
	Index of Economic Freedom	.	-	지표신설	.	-	지표신설
	Q. Maritime Center	14	16	▲2	23	23	-
	Q. HQ	18	24	▲6	30	18	▽12
	Q. Entrepreneur	-	12	지표삭제	-	16	지표삭제

<표 2> 메논 보고서 기준 부산/서울 지표별 평가 순위

3 세계 해양도시 순위(2024)

□ 세계 해양도시 종합평가 결과, ‘싱가포르-로테르담-런던-상하이-오슬로’ 순으로 선정됨

- 종합순위 상위 5위 도시 중 2곳은 아시아권, 3곳은 유럽권에 위치함
- (종합평가 주요현황) 싱가포르가 ‘15년~’24년까지 5회 연속으로 1위 차지
- (싱가포르) 해운, 매력도 및 경쟁력 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박 크기 및 화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더 큰 선박과 화물의 양을 수용하고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 금융, 보험, 벙커링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해양 관련 기관들에 제공함으로써 추후 5년간 계속해서 선진 해양도시에서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함
- (그 외) 로테르담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항만 및 물류, 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런던은 해양금융 및 법률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1	2	3	4	5	6	7	8	9	10	11
2024년	싱가포르	로테르담	런던	상하이	오슬로	뉴욕	도쿄	함부르크	코펜하겐	부산	두바이
2022년	싱가포르	로테르담	런던	상하이	도쿄	홍콩	오슬로	뉴욕	함부르크	코펜하겐	부산

<표 3> 메논 보고서 기준 2022년 및 2024년 세계 해양도시 종합 순위

- (두바이 및 아부다비) 해당 도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글로벌 해운 도시 순위 상위 5위 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디지털 전환 평가 순위) 싱가포르 - 오슬로 - 상하이 - 로테르담

□ 부문별 세계 해양도시 종합순위

순위	해운중심지	해양금융 및 법률	해양기술	항만 및 물류	매력도 및 경쟁력
1	싱가포르	런던	부산	싱가포르	싱가포르
2	아테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로테르담
3	도쿄	오슬로	오슬로	로테르담	런던
4	상하이	싱가포르	상하이	닝보	코펜하겐
5	함부르크	도쿄	런던	함부르크	함부르크

<표 4> 메논 보고서 기준, 부문별 세계 해양도시 종합 순위(2024)

4 부문별 해양 도시 경쟁력 분석

가 해운중심지(Shipping Centers)

□ 평가지표: 정량지표 6개와 정성지표 3개로 구성

- 정량지표: ① 도시 내 등록된 선박관리업체가 보유한 CGT 규모(Clarkson), ② 도시 내 등록된 선주가 관리하는 선단의 CGT 규모(Clarkson), ③ 도시 내 선단의 가치(Clarkson & WFM), ④ 5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도시 내 해운기업 수(Clarkson), ⑤ 해운기업의 매출액, ⑥ 저탄소 배출 연료 사용 선단의 비율(GT 기준)
- 정성지표: ① 선진 해운중심지(전문가 서베이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금융 중심도시 5개 선택), ② 본사 이전 후보 도시로서의 매력도, ③ 영향력 있는 화주 및 용선사

□ 평가순위: 1위 싱가포르, 2위 아테네, 3위 도쿄, 4위 상하이, 5위 함부르크

- 올해 싱가포르가 아테네를 앞질렀다는 점을 제외하면 2022년 순위와 변동 없음
- (싱가포르) 지리적 이점(세계 해운무역 노선의 중간지점이며 중국과 인도와 같은 인구 밀집 국가와 인접)과 거대한 선박량을 가지고 있으며, 해운 도시로서의 매력도와 경쟁력이 인정되고 있음
- (아테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한 도시이며, 해운산업에서 견고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나, 주로 그리스 선주 및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사 이전 후보 도시로서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도쿄) 도쿄는 오랜 기간 해양 전문가들에게 해운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시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선박의 규모가 크고, 선단의 총 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가 많이 등록된 도시로 평가됨. 하지만 높은 운영 비용 및 지역 인재 부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선박 관리 기반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상하이) 중국 선주 및 국제 관리자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으며, 상하이는 상하이컨테이너화물지수(SCFI)를 보유하고 있음. 선박 운영 및 임대, 해양금융 등에서의 디지털화가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 관련 재판 등 그 외 부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함부르크) 해운사 간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팍로이드, 올덴도르프 등의 대형선사가 위치한 전통적 해운도시임

□ 평가지표: 정량지표 8개와 정성지표 2개로 구성

- 정량지표: ① 도시 내 법률전문가 수(Who's who Legal), ② 도시 내 해양 법무법인 수(World Shipping Register), ③ 보험료율(IUMI, ORBIS), ④ 은행의 해양 금융 포트폴리오(Petrofin Bank Research), ⑤ 해양 분야 상장기업의 수(ORBIS), ⑥ 거래소 상장기업 시가총액(ORBIS), ⑦ IPO/채권/유상증자 거래 규모(Clarkson), ⑧ 녹색 IPO/채권/유상증자 거래 규모
- 정성지표: ① 해양금융중심지, ② 지속가능금융도시 인식 정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평가순위: 1위 런던, 2위 뉴욕, 3위 오슬로, 4위 싱가포르, 5위 도쿄

- (런던) 10개의 평가지표 중 5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해양법률 및 해양보험 부문에서 Lloyd's 보험과 영국법 등이 가장 해양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선박 분쟁 등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어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음
- (뉴욕) 해양기업이 가장 많이 상장된 주식거래소가 위치한 도시이며 2022년에 비해 런던에 순위가 뒤쳐졌지만 여전히 해양금융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오슬로) 역사적으로 해양금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 도시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DNB와 Nordea와 같은 큰 해운 은행의 본거지이며, 이 두 은행은 주식거래소, 선도적인 보험과 브로커링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싱가포르) 2022년 8위에서 올해 4위로 반등하였으며, 도시에 내 법률전문가의 수 및 IPO/채권/유상증자 거래 규모에서의 평가가 2022년 대비 상승한 효과가 반영되었고 특히 정성적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파리와 같은 전통적인 도시를 제치고 상위 순위를 차지함
- (도쿄) 일본 자체적으로 몇몇 은행들과 해양금융, ECA(Export Credit Agency) 커뮤니티가 강하며 도쿄의 해양보험 기업은 해운회사들에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하는 등 금융사이드의 해운 포트폴리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실적을 내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법률 부문은 국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 외) 최근 중국의 은행들이 해양 금융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개 은행 중 3개가 중국은행임(Bank of China, ICBC, China Exim)
 - 상하이 는 정성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았는데 정량평가에서는 7위에 그쳤음
 - 도쿄와 상하이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해운 전문가들의 경우 은행 포트폴리오 부문보다 주식거래소 부문에서의 강점을 우선시하여 해양도시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파리는 내륙도시지만 BNP Paribas, Credit Agricole, Societe Generale과 같은 은행 본사가 위치하여 상위를 차지했었음

다 해양기술(Maritime Technology)

□ 평가지표: 정량지표 7개와 정성지표 4개로 구성

- 정량지표: ① 조선소(CGT 기준, Clarkson), ②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GT 기준, Clarkson), ③ 해양기술 기업의 운영 매출(Bureau van Dijk), ④ 선급에서 관리하는 선단(CGT 기준, Clarkson), ⑤ 조선소에서 2020~2022년 건조된 선박의 시장가치(Clarkson), ⑥ 해양기업의 특허권 수(ORBIS), ⑦ 해양 교육 기관의 수(World Shipping Register)
- 정성지표: ① 선진 해양기술중심지, ② 녹색전환 선도도시, ③ 디지털 전환 선도도시, ④ R&D 사업 이전 시 최적 후보 도시의 인식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평가순위: 1위 부산, 2위 싱가포르, 3위 오슬로, 4위 상하이, 5위 런던

- (부산) 부산은 한국의 조선 클러스터 중심지로서, 주요 조선소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원유 운반선 및 LNG 탱커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메가선박” 건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탄소 배출 선박과 조선소 선대의 규모, 해양기술 기업의 높은 영업이익, 신조선의 높은 시장 가치, 해양 기업의 특허권 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2023년 상반기에 부산 조선업은 한국 수출 규모에서 약 120조원(92.2억 달러)을 차지하였으며(2022년 대비 12% 증가) 전체 수주량은 3,900만 CGT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고 수주량을 달성함
- 특히, ‘해양기술’ 분야의 하위 평가지표 중 조선 발주량(CGT), 조선- 저탄소선박 발주량(GT), 조선사 매출액, 선박의 시장 가치, 특허권 등 조선, 선박 건조 분야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하지만, 해양기술,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도시 여부를 묻는 전문가 설문(정성평가)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 해양 연구 및 개발 R&D 정성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싱가포르 해양연구소는 2026년까지 R&D에 8,000만 달러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혁신과 해양 스타트업 지원 이니셔티브가 강점임
 -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GCMD)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었고,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연구, 바이오 연료 공급망 및 LC02 하역 등 여러 국제적 프로젝트를 착수했음

- Pier71 프로그램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150개의 해양 기술 스타트업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2030년부터 싱가포르 항만에 운항하는 모든 신규 선박은 완전 전기식이거나,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목표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그 밖에 완전 자동화 항만, 지속 가능한 항만 및 해운업, 미래 선박 연료 개발 등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존재함
- (오슬로) 오슬로는 해양 기술과 혁신의 주요 중심지로, 콩스버그 마린타임, 코그나이트와 같은 선진 기술기업의 본거지이며,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오슬로는 DNV의 본사 소재지로, DNV는 매 수익의 5%를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상하이) 상하이는 세계적인 조선소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크루즈 선박을 출시하고 세계 최대의 B-Tank 에탄올 운반선(VLEC)을 인도하는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요 해양 전시회인 마린텍 차이나를 개최하여 최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음
- (런던)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양 교육 기관과 전통적인 선급기관이 위치한 도시임

라

항만 및 물류서비스(Port & Logistics)

□ 평가지표: 정량지표 3개와 정성지표 3개로 구성

- 정량지표: ① 항만 규모(TEU 기준, Lloyd's Top 100 Ports 2023), ② 정기선 연결지수(UNCTAD 2023), ③ 항만 내 가용한 LNG 벙커링 인프라(Alternative Fuel Insights DNV)
- 정성지표: ① 세계 항만 및 물류 중심지, ② 디지털 항만, ③ 다연료 벙커링 항만

□ 평가순위: 1위 싱가포르, 2위 상하이, 3위 로테르담, 4위 닝보, 5위 함부르크

- (싱가포르) 동서 방향 무역 노선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싱가포르는 세계 130개 국가와 항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컨테이너선에 대한 항만료 할인 및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위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 경쟁력을 높여 선박 운항노선을 유치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와 디지털화 증진을 통한 항만 운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선박의 전기화와 육상 충전 지원, 암모니아 및 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 촉진, 투아스

항만에 세계 최대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65백만 TEU 규모)을 개발 중임

- 전문가 그룹에서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여전히 항만 및 물류 서비스에서 최고의 도시로 평가되고 있음
- (상하이) 항만규모와 운송연결지수(PLSCI)에서 높은 가중 평균 점수를 얻었으며, 상하이의 항만을 드나드는 정기선은 149개로, 2023년 기준 컨테이너 적재량이 4,916만 TEU에 이르러 전세계 총 무역량에서 3.6%를 차지함
- (로테르담) 로테르담 마스블락테(Maasvlakte) 터미널은 6,500만 TEU 규모의 유럽 최대 고급 자동화 항만이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동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됨
- (닝보) 항만 규모와 운송연결지수(PLSCI)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아직 항만에 LNG 연료 인프라가 부재함
- (그 외) 광저우는 항만 역할을 심천에 분리하면서 상위 5개국 순위에 들지 못했으며, 홍콩은 2023년에 전체 화물 적재량이 약 8%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중국 해안을 지중해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운송연결지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음

마

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 평가지표: 정량지표 7개와 정성지표 2개로 구성

- 정량지표: ① 사업수행 용이성(World Bank 2020), ② 공공부패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③ 기업가 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④ STRI: 서비스무역 제한 - 해양 운송 및 물류 화물 처리 지수(OECD), ⑤ 글로벌 혁신 지수(WIPO), ⑥ 정주여건(Mercer 2023) ⑦ 경제 자유 지수(The Heritage Foundation)
- 정성지표: ①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선진 해양중심지, ② 본사 이전 시 최우선 후보 도시

□ 평가순위: 1위 싱가포르, 2위 로테르담, 3위 런던, 4위 코펜하겐, 5위 함부르크

- (싱가포르) 해당 부문 정성지표에서 모두 최상위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우호적 비즈니스 정책, 정부의 지원책, 투명성 및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순위를 뒷받침하고 있음
 -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적, 물적 비용이 낮고, 관련 프로세스가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 번거롭지 않다는 인식이 있고, 법인세가 17%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코펜하겐) 사업 용이성, 생활의 질, 자유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반부패한 도시로 평가받음

- (두바이) 전통적인 타 해양도시 가운데 부상하고 있는 해양 신도시이며 매력도 및 경쟁력 부문에서 상위 15위에 올랐음
 - 정량지표에서는 순위가 낮지만, 정성지표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으며, 본사 이전 시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지고 있음
 - 두바이의 경쟁력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함과 동시에 중동 지역의 무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전문가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 (자유로운 취업비자, 국제적인 업무환경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5 시사점 및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해운중심지

- 정량지표 중 ‘도시 내 등록된 선주가 관리하는 선단의 CGT 규모’ 32위, ‘도시 내 선단의 가치’ 32위, ‘5척 이상 선박 가진 도시 내 해운기업 수’ 18위, ‘저탄소 연료 선단 GT 비율’ 36위로 개선이 필요
 - 주요 해운기업 및 선주의 부산 유치 및 국가 차원의 해운기업 육성 노력 병행 필요
 - 저탄소 선단 비율 확대를 위하여 국제적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절감 장비 및 신조 투자 및 지원, 저탄소 배출 연료의 적극적인 개발 및 상용화가 필요
- 한국의 해운기업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산에 본사를 둔 해운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임
 - 해운중심지 부문에서 인천/서울은 11위를 차지했으며, 선박의 가치와 친환경 선박 사이즈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선주 기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일례로, 광저우는 항만 역할을 심천에 분리하면서 항만 서비스 부문에서 평가 점수가 낮아져 상위 5개국 순위에 들지 못했음
 - 부산의 해운중심지 부문 정량지표 개선 및 해운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운기업 본사의 부산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해양금융 및 법률

- 전체 5개 부문 중 ‘해양금융 및 법률’ 부문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음
- (해양금융 부문) 정량지표 중 ‘해운기업 상장기업 수’, ‘해양기업 시가총액’, ‘기업공개, 회사채 등 발행 거래 규모’에서는 각각 8위, 5위, 8위로 비교적 상위 순위를 차지함
 - 직접금융 자금조달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에 입지하여 해당 성과가 집계된 결과로 판단됨
 - 부산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캠퍼스선박운용 등 해양금융 주체의 집적으로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함
 - 하지만 ‘보험료율’,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 정량지표에서 인천/서울이 각각 9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선박 금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여 부산의 평가 점수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해양금융 부문 정성지표(해양금융 분야 선진도시 설문, 지속가능금융 분야 선진도시 설문)에서는 모든 지표가 23위로 낮은 순위를 차지함
- 친환경 전환기에 해양산업에서는 금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우리나라 노후 선박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시 2050년까지 150조가 필요하며 이 중 100조는 금융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양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
 - 싱가포르는 해양산업 연관 R&D, 신기술 상업화,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aritim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MINT Fund) 및 인력 양성, 훈련 인프라목적의 Maritime Cluster Fund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양법률 부문) 정량지표 중 ‘도시 내 법률전문가 수’는 29위, ‘도시 내 해양 법무법인 수’는 입력값이 존재하지 않아 해양금융 및 법률 부문 순위를 크게 낮추고 있음
-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재추진(타당성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부산발전연구원, 2017))을 통해 해사법률, 해양금융, 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 산업 전반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 해사법원 설치 시 관련 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 부산광역시(2022))

- 현재 인천, 서울 등 타지역에서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해외의 경우도 대표항만이 있는 도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런던, 싱가포르, 홍콩, 로테르담, 상하이 등)
-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길 경우 부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 하드웨어 산업 부문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해양 지식 서비스산업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공청회, 포럼 개최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
- 부산대의 금융, 해운통상분야 특성화 로스쿨 및 동아대의 국제상거래법 특성화 로스쿨을 통한 해양법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해양기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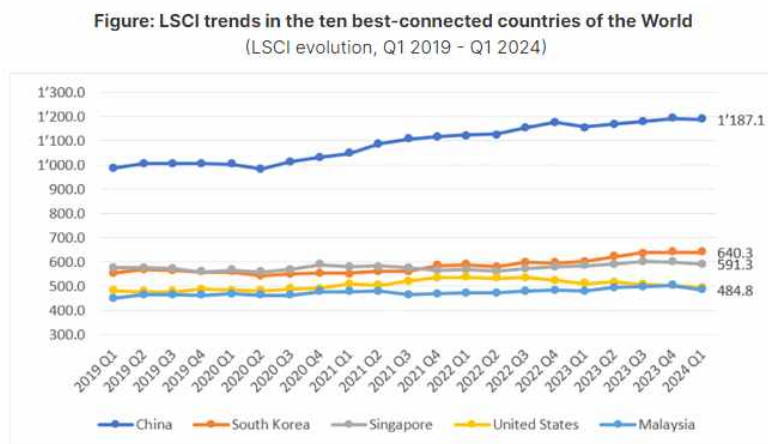
- 해양기술 영역에서 부산은 ‘항만의 선단 규모’, ‘인근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시장가치 및 매출액’, ‘해양관련 특허’ 등의 순위 등에 주로 기인하여 세계 1위를 기록
- 정량지표 중 ‘해양교육기관의 수’에 대한 순위가 29위로 타지표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및 2024년 부로 신규로 운영 중인 해양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부산공유대학(BITS)*’의 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산공유대학(BITS; Bus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부산 내 14개 대학이 협약하여 2024년부터 운영되는 공유대학으로,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등 3가지 핵심 분야에서 지역 인재 1만 명 이상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친환경 전환기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물려드는 수주량과는 반대로 조선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맞닥뜨렸으며, 조선업계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보임
 -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개발을 위하여 복잡한 비자 제도 개선, 해양 인력 양성 등 인재 확보를 위하여 업계와 정부의 세심한 제도 개선 및 관심이 필요
- 해양 신기술 R&D 펀드 확대
 - 싱가포르의 경우 해양산업 연관 R&D, 신기술 상업화,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aritim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MINT Fund), 인력 양성, 훈련 인프라 목적의 Maritime Cluster Fund를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해양 친환경 전환 대응 센터 설립
 - 산·학·연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간의 장벽을 허무는 협력이 필요함

□ 항만 및 물류서비스

- 부산은 ‘연간 컨테이너 처리 실적’ 지표에서 7위, ‘LNG 공급 역량’에서 8위, ‘미래의 항만 및 물류서비스 중심지’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 9위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LNG 공급 역량’ 지표의 경우 2022년 4위 대비 4위가 하락하여 지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목표 설정, EU ETS 등 국제적인 친환경 전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 경쟁력 평가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대비하여 차세대 연료 개발 R&D 및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여야 함(현재 ‘선박연료공급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용역을 수행 중임)
 - 금년(2024년 2월) 부산항은 LNG 벙커링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기 보고서에서는 해당 지표 순위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이러한 대전환기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LNG뿐 아니라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기술과 안전성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산항 혹은 인근 울산항을 ‘세계적인 친환경 연료 공급 항만’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송연결지수(LSCI) 지표는 44위를 기록하여 해당 부문 순위에 하방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실제 운송연결지수의 지표를 확인하였을 때, 한국의 연결지수가 상위수준으로 나타나 ‘부산’ 데이터 오기입 혹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사기관에 데이터 정정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그림 2> 운송연결지수(LSCI;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추이 (출처: UNCTAD)

□ 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

- 정량지표 중 ‘STRI(OECD) 지수’, ‘경제적 자유도 지수’ 지표에 데이터 입력값이 누락되어 있어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사업수행 용이성’에서는 4위, 정성지표 중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선진 해양 중심지가 될 도시’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14위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공공부패 지수’ 23위, ‘정주여건’ 26위, ‘본사 이전 후보 도시’ 18위로 개선이 필요
- 언어의 차이로 인한 불편, 외국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에 배타적인 문화가 부산에서의 사업과 정주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안(2024.01.25.)의 글로벌 교육환경조성(31-36조), 글로벌 생활환경조성(37-42조)을 통하여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과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특례, 영어 사용환경 조성 등이 가능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 적용(제6조)하므로 실질적으로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육성시켜 세계 해양 산업 플레이어들에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을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과 부산 대시민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
 - 정성적 지표인 미래의 선도적인 해양도시, 본사 이전 후보 도시, 혁신과 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서의 매력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시간 제한 관련 법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 해양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
 - 부산해양금융위크(BMFW), 세계해양포럼, 코마린 행사 등 해양이벤트의 내실화 및 국제적 홍보가 필요함
 - IMO 이벤트 등 유명 해양국제컨퍼런스, 심포지움 등의 지속적인 개최로 해외에 부산의 해양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요약

- 본 보고서 평가에 누락된 지표 데이터에 대해 Follow-up하여 지표 순위 개선 필요
-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로의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을 ‘친환경 해양금융중심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해양 관련 산업 플레이어들을 유치하고, 부산의 강점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어야 함

평가영역	개선방안	정정 지표
해운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기업·선주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대책 마련(해양특구 지정 및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 활용) 	
해양금융 및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법원 설치 재추진 - 해양법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 - 녹색채권 발행 규모 확대 	
해양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개발을 위해 복잡한 비자 제도 개선, 해양 인력 양성 등 인재 확보 - 해사고등학교,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공유대학에 대한 전략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교육기관의 수(29위) 순위 개선
항만 및 물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연료 개발, 병커링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서의 경쟁우위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연결지수(LSCI) 데이터 정정 요청
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선, 24시간 공항 조성 추진 - 기업 경영 관련 규제(근로시간 제한) 합리화 - 외국기업, 외국인에 배타적인 문화를 부산 대시민 차원에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I, 경제자유지수 데이터 확인 필요

붙임 1 평가 지표의 변화(2019년~2024년)

	2019년	2022년	2024년
해운 중심지	1. 선박 사이즈 - 선박관리업 ¹⁾ 2. 선박 사이즈 - 선주 3. 선박 가치- 선주 4. 해운사의 수	1. 선박 사이즈 - 선박관리업 2. 선박 사이즈 - 선주 3. 선박 가치 - 선주 4. (변경) 해운기업(본사)의 수 5. (추가) 해운기업의 매출액 6. (추가) 저탄소 연료 선박	1. 선박 사이즈 - 선박관리업 2. 선박 사이즈 - 선주 3. 선박 가치 - 선주 4. 해운기업(본사)의 수 5. 해운기업의 매출액 6. 친환경 연료 선박 사이즈 - 선주
		1. (추가) 해운중심지 2. (추가) 본사운영의 매력도	7. 해운중심지 8. 본사를 이전하고 싶은 도시 9. (추가) 영향력 있는 화주 및 용선사
해양 금융 및 법률	1. 법률전문가 수 2. 해양관련 변호사의 수 3. 보험료율 4. 신디케이트론의 규모(가치) 5.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 6. 해양 분야 상장회사의 수 7. 거래소별 상장회사의 가치 8. 해당지역 거래소의 주식 거래량	1. 법률전문가 수 2. 해양법률사무소의 수 3. 보험료율 4. 신디케이트론의 규모(가치) 5.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 6. 해양 분야 상장회사의 수 7. 거래소의 상장회사 시가총액 8. IPO/채권/유상증자 거래량	1. 법률전문가 수 2. 해양법률사무소의 수 3. 보험료율 4. (삭제) 5.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 6. 해양 분야 상장회사의 수 7. 거래소의 상장회사 시가총액 8. IPO/채권/유상증자 거래량 9. (추가) 녹색 IPO/채권/유상증자 거래량
		1. (추가) 해양금융중심지	1. 해양금융중심지 2. (추가) 지속가능금융
해양 기술	1. 조선소(CGT) 2. 특수 선박 3. 신조 선박의 시장 가치 4. 해양 관련 특허의 수 5. 도시별 해양교육기관의 수	1. 조선소(CGT) 2. (추가) 조선소(CGT)-저탄소선박 건조 3. (추가) 해양기술산업의 운영매출 4. 특수 선박 5. 신조 선박의 시장가치 6. 해양 관련 특허의 수 7. 도시별 해양교육기관의 수	1. 조선소(CGT) 2. 조선소(CGT) - 저탄소선박 건조 3. 해양기술산업의 운영매출 4. 특수 선박 5. 신조 선박의 시장가치 6. 해양 관련 특허의 수 7. 도시별 해양교육기관의 수
		1. (추가) 해양기술센터 2. (추가) 녹색전환 해양도시 3. (추가) 디지털전환 해양도시 4. (추가) R&D센터를 이전하고 싶은 도시	1. 해양기술센터 2. 녹색전환 해양도시 3. 디지털전환 해양도시 4. R&D센터를 이전하고 싶은 도시
항만 및 물류	1. 항구의 규모(TEU) 2. 화물의 양(Total cargo) 3. Port handling by operator 4. 항구 인프라 상태	1. 항만의 규모(TEU) 2. (추가) 항만 운영업체 규모 3. (추가) 정기선 연결지수 4. (변경) LNG병커링 항만	1. 항만의 규모(TEU) 2. (삭제) 3. 정기선 연결지수 4. LNG병커링 항만
		1. (추가) 항만 및 물류 선진도시	1. 항만 및 물류 선진도시 2. (추가) 디지털 항만 3. (추가) 다연료 병커링 항만
매력도 및 경쟁력	1. 사업수행 용이성 2. 공공부패지수 3. 기업가정신 4. 세관 통과 절차	1. 사업수행 용이성 5. 공공부패지수 2. 기업가정신 3. (삭제) 4. (추가) 해양 운송 및 물류 화물처리	1. 사업수행 용이성 2. 공공부패지수 3. 기업가정신 4. 해양 운송 및 물류 화물처리 5. (추가) 글로벌 혁신 6. (추가) 정주여건 7. (추가) 경제 자유성
		1. (추가) 앞으로가 기대되는 해양도시 2. (추가) 본사 이전을 고려하는 도시 3. (추가) 가장 혁신적인 도시	1. 앞으로가 기대되는 도시 2. 본사 이전을 고려하는 도시 3. (삭제)

1) 선박관리업 선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선박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기술적 선박관리업(선박의 정비·수리·보험·클레임 처리, 선원의 배상, 선박관련 감독, 선용품·연료 등의 조달), 상업적 선박관리업(선박 지정 운송계약, 용선 서비스, 선박 매매, 선주에 대한 컨설팅)으로 나뉨

붙임 2 | 부문별 세부 지표 항목

□ 해운중심지

지 표	설 명	원천데이터
선박관리업 기준 선대 규모 (Fleet size - Management)	도시 내 등록된 선박관리업체가 보유한 CGT 규모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선주 기준 선대 규모 (Fleet size - Owner)	도시 내 등록된 선주가 관리하는 선단의 CGT 규모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선주 기준 선대 가치 (Fleet value - Owner)	도시 내 선단의 가치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 WFM
도시 내 해운 기업의 수 (Number of shipping companies with HQ in each city)	5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도시 내 해운기업 수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해운 기업의 수익 (Operational revenue for shipping companies)	해운기업의 수익	BUREAU VAN DIJK(ORBIS DATABASE)
저탄소 배출 연료 사용 선단의 비율 (Low carbon intensive fuel types – share of fleet size)	저탄소 배출 연료 사용 선단의 비율(GT 기준)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 Alternative Fuels Insights'
전문가 평가: 해운중심지 (Shipping centers of the world)	"세계 도시 중 선진 해운중심지로 꼽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사무소 이전 시 고려하는 도시 (Number one choice for relocation of operations)	"사무소의 이전을 고려할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영향력 있는 화주와 용선사 (Cargo owners and charterers)	"가장 영향력 있는 화주 및 용선사가 위치한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 해양금융 및 법률 부문

지 표	설 명	원천데이터
법률 전문가 수 (Legal experts)	“Who’s who Legal” 보고서 기반의 도시별 법률 전문가 수	Who’s who Legal 2023
해양법률 법인의 수 (Maritime lawyers)	“World Shipping Register”에 등록된 도시별 해양법률 법인의 수	World Shipping Register(world-ships.com)
보험료율 (Insurance premiums)	해양보험회사 의 도시별 P&I, 선체, 화물, 해상 보험 프리미엄	IUMI*, CEFOR**, Bureau van Dijk (ORBIS database)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 (Shipping banks portfolio)	세계 상위 40개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본사 기준)	PETROFIN RESEARCH
해양 분야 상장기업의 수 (Number of listed maritime owner groups)	거래소에 상장된 해양 분야 기업 수	BUREAU VAN DIJK(ORBIS DATABASE)
거래소의 상장기업 시가총액 (Market cap maritime companies)	거래소에 상장된 해양 관련 기업 시가총액	BUREAU VAN DIJK(ORBIS DATABASE)
IPO/채권/유상증자 거래량 (IPO/Bonds/Follow ons)	거래소 기준 해양 관련 IPO, 채권, 유상증자 거래 규모	CLARKSONS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녹색 IPO/채권/유상증자 거래량 (Green IPO/Bonds/Follow ons)	거래소 기준 해양 관련 Green IPO, Green Bonds, 유상증자 거래 규모	CLARKSONS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전문가 평가: 해양금융중심지 (Maritime finance center of the world)	“세계에서 5위에 꼽히는 해양금융중심지를 꼽 으면?(Which cities do you consider the five leading centers of maritime finance of the world?)” 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지속가능 해양금융 중 심지 (Sustainable maritime finance)	“선도적으로 녹색 및 지속가능 금융을 시행하고 있 는 것으로 인식되는 도시는?”의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 IUMI: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국제해상보험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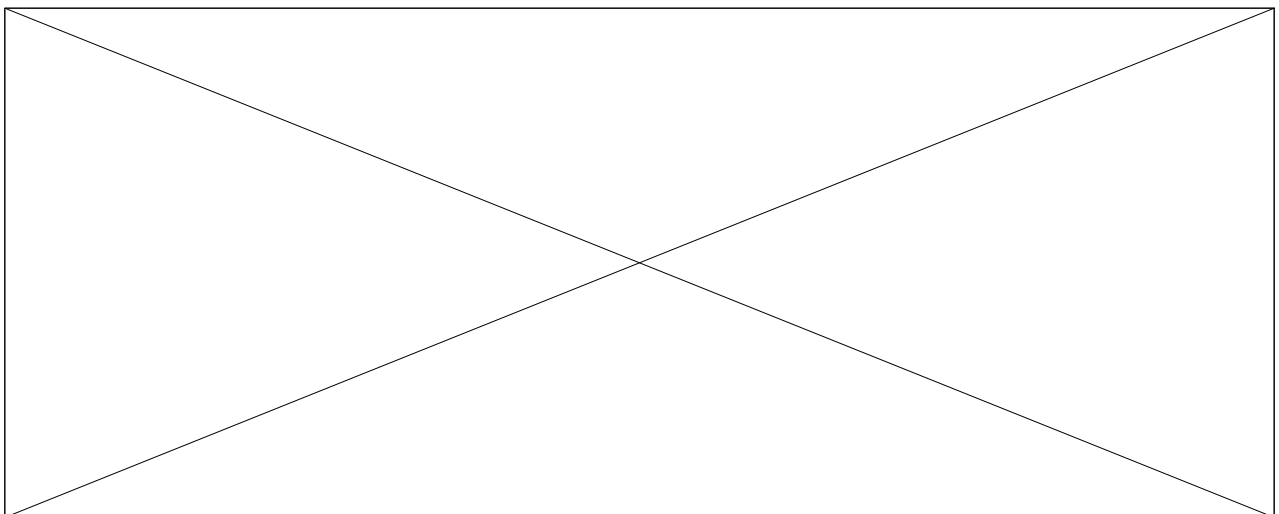
**CEFOR: The Central Union of Marine Underwriters(해상보험중앙연합)

□ 해양 기술

지 표	설 명	원천데이터
조선소(Shipyards(CGT))	조선소에 수주된 선단의 규모(CGT 기준, 2020년 이후 오더북 포함, 야드당 선단의 규모)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친환경 선박 건조 조선소 (Shipyards(GT) - Low carbon intense ships built)	조선소에 수주된 친환경(저탄소) 선단의 규모(CGT 기준, 2020년 이후 오더북 포함, 저탄소 연료 선박)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 Alternative Fuels Insights (DNV 2019)
해양기술 기업 매출액 (Operational turnover of companies in maritime technology industry)	해양기술 관련 기업의 운영수익(매출액) - 조선소 본사의 매출가치의 총합	Bureau van Dijk (ORBIS database, most updated data by December 2023)
선급에서 관리하는 선단 (Classified fleet)	각 선급에서 관리하는 선단의 규모(본사 위치, CGT 기준)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신조선의 시장 가치 (Market value of ships built at shipyards)	신조선 발주금액의 합(2020~2022년 기준)	Clarksons World Fleet Register
해양 특허의 수 (Number of maritime patents)	해양기업(본사)의 특허 수(IPC classification: B63B, B63C, B63G, B63H, B63J)	Bureau van Dijk (ORBIS database)
해양 교육 기관의 수 (Number of maritime education institutions in each city)	도시별 해양 교육 기관의 수	World Shipping Register: world-ships.com
전문가 평가: 해양 기술 중심지 (Maritime technology center of the world)	"세계에서 해양기술을 선도하는 5개의 도시를 꼽으먼?"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 (Leading city in terms of green transformation)	"해양 산업에서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디지털 전환 분야를 가장 선점하고 있는 도시 (Best positioned city in terms of digital transformation)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선점하고 있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R&D 사업소 이전 시 고려할만한 하나의 도시 (Number one choice for relocation of R&D)	"R&D 사업소 이전할 시에 가장 매력적인 도시를 꼽으먼?"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 항만 및 물류

지 표	설 명	원천데이터
항만 규모(TEU 기준)	항만 처리 규모(TEU), 항만이 얼마나 붐비는지에 대한 세계 상위 100위 항만 데이터	Lloyd's Top 100 Ports 2023(2022 data)
정기선 연결지수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2023년 기준 정기선연결지수	UNCTAD 2023
LNG 가용 항만 (LNG available at ports)	- LNG 벙커링 시설 가용 여부 - LNG 벙커링 운용 가능량의 합계 기반 항만 순위	Alternative Fuel Insights DNV
전문가 평가: 항만 및 물류 중심지 (Ports and logistics center of the world)	"세계 항만 물류를 선도하는 5개의 해양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디지털 항만 (Digitalized ports)	"항만 운영에서 디지털 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전문가 평가: 다연료 항만 (Multifuel ports)	"다연료 벙커링 인프라와 운용 부분에서 가장 선점하고 있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 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

지 표	설 명	원천데이터
사업수행 용이성 (Ease of doing business)	사업수행 용이성(국가 단위 데이터에서의 규제 실적 평가)	World Bank 2020(doingbusiness2020.org)
공공부패지수 (Transparency/ corruption)	공공부패지수(2022년 기준, 국가 단위 데이터)	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 2022)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몇 가지 지표 평가에 따른 기업 생태계 조성 정도(2022~2023년 기준, 국가 단위 데이터)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STRI OECD: 해양 운송 및 물류 화물 처리 지수 (STRI OECD Sectors: Maritime transport and logistics cargo handling)	STRI OECD: 해양 운송 및 물류 화물 처리 지수 (2022년 기준, 국가 단위 데이터)	OECD 2022
글로벌 혁신 지수 (Global innovation)	WIPO의 글로벌 혁신 지수(GII 2023년 기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정주여건 (Quality of Living City)	Mercer's 정주여건 랭킹(2023년 기준)	Mercer 2023
경제 자유 지수 (Economic freedom)	경제 자유 지수(2023년 기준)	The Heritage Foundation
5년 내 세계 5대 선진 해양중심지 (Leading maritime center of the world in 5 years)	"5년 후 선진 해양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도시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
본사 이전 시 최우선 후보 도시 (Number one choice for relocation of headquarters)	"본사 이전 시 가장 매력 있는 도시 후보는?"의 세계 해양 전문가 답변 기준	Menon Economics & DNV